

문학은 솔직히 말하면 올해 6,9월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수능과도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22 6,9평 이후로, 즉 22수능을 포함하여 생각했을 때 비문학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느낌입니다.

사실상 해설할 만한 문항이 거의 없다 싶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저는 오르비클래스에서 인터넷강의를 하고 있고,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현장강의를 하고 있는 김강민 강사입니다.

[18-21] 고전소설

No.	정답	근거	난이도
18	④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 밝은 달이 비추고 꽃잎이 향기가 스며들고 피리를 불고 서로 시를 짓고 있습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③		
⑤			

No.	정답	근거	난이도
19	③	중략 줄거리 앞부분. 최측은 자기 아내가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다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④		
⑤			

No.	정답	근거	난이도
20	③	매양-매번 꽃 피는 아침과 달 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㉔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이고 ㉔은 ㉔ 중 '어느 봄날', 즉 그 중 어느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④		
⑤			

No.	정답	근거	난이도
21	⑥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 격정적인 것이지 또 다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기]의 첫 문장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보기에 써 있다고 무조건 맞는 선지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④		
⑤			

총평: 연계 + 기출에 나왔던 부분 = 가장 쉬운 세트였습니다.

[22-26] 고전시가

[보기]를 먼저 봤으면 굉장히 쉬웠을 것 같습니다.

24번 보기에서

① 도산 십이곡 :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

② 지수정가: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 묘사,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

No.	정답	근거	난이도
22	①	이미 [보기] 내용만 가지고도 ①에서 (가) (나)는 거의 확정이 됩니다. (다)의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서 겸재는 실제 원근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성을 추구하고 시선의 깊이를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 역시 이미 사라져 버린 망양정이 있던 자리를 갔을 때 허전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겸재가 추수하던 가치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
	오답		%
	②	Pass	
	③		
	④		
⑤			

No.	정답	근거	난이도
23	⑥	티 없이는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가 아니라, 맑은 거울로 비유한 작은 연못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시구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③		
④			

No.	정답	근거	난이도
24	㉓	천석고황은 기출에서 이미 나왔던 표현으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든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아쉬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시구입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④		
	⑤		

No.	정답	근거	난이도
25	㉓	㉠은 화자가 옛 현인이 은거한 거처로 비유하고 있는 공간이며,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 22번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옛 망양정 자리에 더 이상 망양정은 없지만, 겸재의 그림이 꼭 실제의 사실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듯 허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④		
	⑤		

No.	정답	근거	난이도
26	④	원근감을 그대로 실현해야- 보자마자 골랐어야 합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④		
	⑤		

총평: (다) 수필이 조금 까다로웠으나, 나머지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27-30] 현대소설

No.	정답	근거	난이도
27	①	내가.. 하다가 그냥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
	오답		%
	②	Pass	
	③		
	④		
	⑤		

No.	정답	근거	난이도
28	⑥	어머니가 “영역이 언제 다녀갔지?” 라고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말하는 이가 나, 서술자입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③		
	④		

No.	정답	근거	난이도
29	①	D 뒷부분,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 내고 울타리를 바꾸었으나 - /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 나무는 -/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이 손바닥, 초여름에는 부채, 가을에는 종이 우산.	하
	오답		%
	①	Pass	
	②		
	③		
	④		

No.	정답	근거	난이도
30	②	나는 애초에 낯선 공간에서 친숙해지고자 하지 않는다. 불편해 하고 있다.	하
	오답		%
	①	Pass	
	②		
	③		
	④		

총평: 현대소설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1-34] 현대시

No.	정답	근거	난이도
31	㉠	한여름 채전에 나가면 있는 옥수수 가지 고 추 호박 등이 보여주는 생명의 양상을 예찬하고 있다. 황홀한 음지의 꽃, 즉 버섯을 예찬하고 있다.	하
	오답		%
	㉠	Pass	
	㉡		
	㉢		
㉣			

No.	정답	근거	난이도
32	㉣	㉢은 극진한 축복을 하는 주체이다. 대비되지 않는다.	하
	오답		%
	㉠	Pass	
	㉡		
	㉢		
㉣			

No.	정답	근거	난이도
33	㉡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라고 했으니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하
	오답		%
	㉠	Pass	
	㉡		
	㉢		
㉣			

No.	정답	근거	난이도
34	㉢	흄씨들이 일어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인데, 이걸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흄어지게 되는 계기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
	오답		%
	㉠	Pass	
	㉡		
	㉢		
㉣			

총평: 현대시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디.